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MIDDLE EAST

중동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6/22~06/28

1. 호르무즈 해협 해상 안전 위협과 물류 혼란
2. 중국 국영 정유사의 이란 원유 재구매 가능성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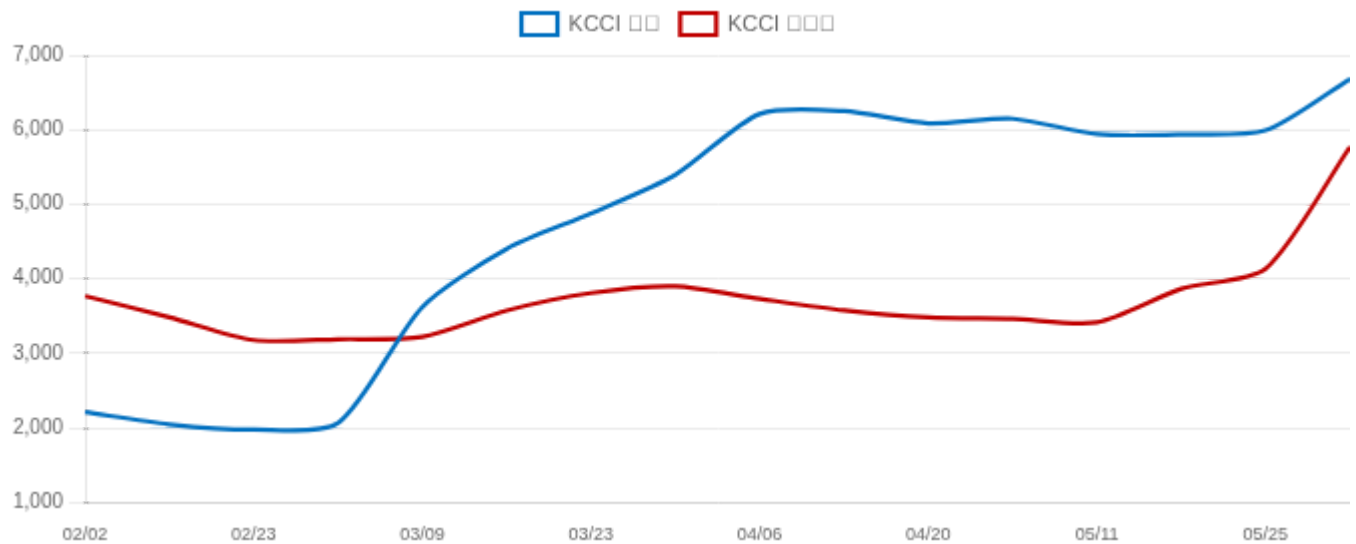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중동은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 위협이 재차 부각되며 물류 혼란이 심화되었다. 에버그린 컨테이너선 피격으로 해협 재개 노력이 중단되면서 글로벌 에너지와 교역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해상 위협은 주요 석유 생산국의 수출 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해운 보험료 급등과 우회 경로 확대를 초래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 국영 정유사들의 이란 원유 재구매 검토는 대체 공급원 확보 경쟁과 내수 수요 감소로 인해 실제 구매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중등	6,681 \$/FEU	06/22	+4.6%	+11.5%
KCCI 지중해	5,768 \$/FEU	06/22	+9.8%	+39.6%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6/22

호르무즈 해협 해상 안전 위협과 물류 혼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 노력에 에버그린 컨테이너선 피격으로 중단되며 해상 안전과 물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버그린의 9,532teu급 컨테이너선 Ever Lovely가 드론 공격을 받아 IMO의 대피 작전이 일시 중단됨. 해당 선박은 오만 해역 인근 남부 항로를 통과하던 중 피격당했으며, 승무원 부상은 없었고 선박은 자력 항해가 가능한 상태로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음.

이란 해군은 해협을 빠져나가는 선박은 이란 지정 항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항로 사용 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IMO 사무총장은 해당 선박이 IMO 대피 프레임워크 하에 운항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작전 중단을 선언함.

과거 IMO의 대피 회랑 발표와 오만의 공식 항로 지정으로 해협 통행이 회복되는 듯했으나, 이번 공격으로 재개 계획에 제동이 걸림. 에버그린은 선박이 UK 해상무역운영국 권고 항로를 따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선이 가중됨.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해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2023년 기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1%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대체 항로인 희망봉 우회 시 항속 거리가 30% 이상 증가함. 이번 사태로 해상 보험료 급등과 화물 지연이 예상됨.

- 에버그린의 9,532teu급 Ever Lovely가 오만 해역에서 드론 공격을 받음
- IMO 대피 작전 중단, 안전 보장 재확인 필요
- 이란, 자국 지정 항로 외 사용 선박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
-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 수송량은 세계 21% 차지
- 희망봉 우회 시 항속 거리 30% 이상 증가

전망

이란의 군사적 위협과 IMO의 작전 중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단기간에 어려울 전망이다. 선사들은 대체 항로와 보험료 상승에 대비해야 하며, 중동 해역 안전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물류 비용이 추가로 증가할 것임.

시사점

화주 — 중동발 화물의 해상 운송 지연과 보험료 인상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됨.

포워드 — 호르무즈 해협 우회 경로와 대체 운송 수단을 사전에 확보해야 함.

선사 — 해당 해역 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란과의 협의 및 IMO 지침 준수가 필수적임.

중국 국영 정유사의 이란 원유 재구매 가능성

중국 국영 정유사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이란 원유 재구매를 검토 중이나, 대체 공급원 경쟁과 내수 수요 감소로 인해 구매 규모가 제한될 전망이다.

중국 국영 정유사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가 이란 원유 재구매를 고려 중이다. 이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이후 처음으로, 최근 미국이 이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구매와 달러 결제를 허용하는 면제를 부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개 움직임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 조치가 있으나, 정유사들은 은행, 보험, 해운 등 관련 인프라 재구축에 신중한 입장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대체 공급원과의 가격 경쟁, 중국 내 연료 수요 감소가 구매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이란 원유를 재구매할 경우 글로벌 원유 시장에 추가 공급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경쟁 공급원(예: 러시아, 사우디)의 가격 인하 압박과 중국의 정제 마진 악화로 실제 거래량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유사의 이란 원유 도입은 단기적으로 원유 공급 다변화에는 기여하나, 내수 수요 둔화와 정제 설비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제재 리스크가 상존해 거래 재개 속도는 더딜 수 있다.

- 시노펙과 페트로차이나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이란 원유 재구매 검토
- 미국이 6월 22일 이란 석유 구매 및 달러 결제 면제 부여
- 중국 정유사들은 은행·보험·해운 등 인프라 재구축 필요
- 대체 공급원 경쟁과 내수 연료 수요 감소가 구매 의지 약화
- 소식통들은 구매 재개 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전망

중국의 이란 원유 재구매는 제한적 규모로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공급 증가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과 중국 내 수요 부진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

시사점

화주 — 중국의 이란 원유 도입 재개는 단기적으로 해상 운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나, 중동발 원유 공급 증가 시 유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포워드 — 이란 원유 운송 재개 시 해운 보험 및 금융 관련 규제 변화를 주시해야 하며, 신규 물동량 창출 가능성은 낮음.

항만·선사 — 중국 항만의 이란산 원유 하역 수요가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제재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물량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움.